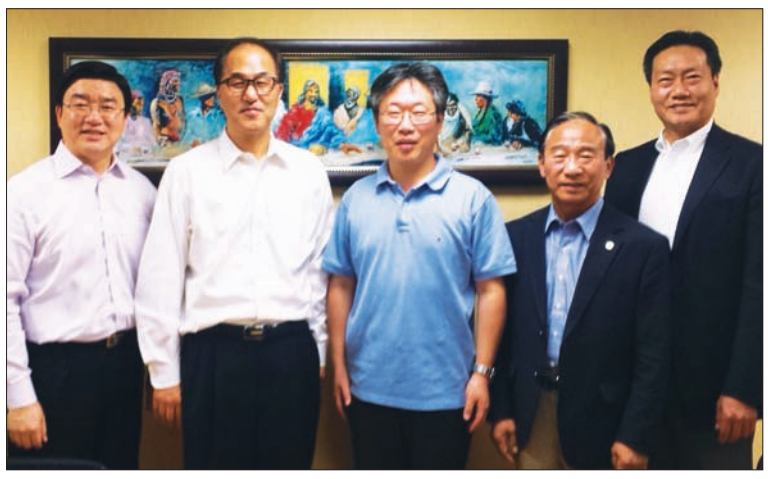
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310·538·3333 samsungmoving.com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15, 2015 Vol. 466



왼쪽부터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상철 선임목사, 노창수 담임목사, 비전케어서비스 김동해 이사장, 서영석 고문, 박용준 이사장

제3세계 불우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새 빛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가 지난 성탄 헌금 5만 달러를 제3세계의 불우 시각장애인들의 개안 수술비로 헌금했다. 국제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서비스(이사장 김동해)는 이 5만 달러로 약 400여 명의 시각 장애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비전케어서비스는 전 세계 30여 개 저개발국가에서 무료 안과 캠프를 열고 백내장과 사시 수술을 해주는 단체로, 실명 예방과 백내장 수술 등 무료개안수술을 펼쳐 10만 명의 외래진료와 14,000회의 개안 수술을 진행했다. 미주서부지부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아이티 등 중남미 지역에서 안과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노창수 목사는 "전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제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2013년 성탄 헌금도 구순구개열 어린이의 안면성형비와 지역 내 미자립교회를 위해 전액 지원한 바 있다.

남가주밀알 88명에게 15만 달러 장학금

남가주밀알선교단이 15만2천 달러의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88명에게 수여한다. 남가주밀알은 2001년부터 장애인과 봉사자, 사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복지기금을 조성해 수여해 왔으며 그 총액이 181만 달러에 달한다.

남가주밀알은 2014년 한희준 씨와 크리스토퍼 더플리 군 초청 밀알의 밤 행사를 통해 이 기금을 마련했으며 장애인 장학생 15명, 근로복지생 5명, 꿈나무 장학생 33명, 한국 장학생 10명, 제3국 장학생 15명, 장애인 선교 사역자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 행사와 함께 남가주밀알 신임단장에는 이종희 목사가 취임한다. 전 단장인 이영선 목사는 미주밀알 총단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종희 목사는 총신대를 졸업하고 총신대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애틀밀알선교단 단장으로 사역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남가주밀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식과 신임단장 취임식은 25일 오후 4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에서 열린다.

문의) 657-400-9570

미주 한인의 날 기념하며 사랑의 점심 나눠요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5년째 매달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사랑의 점심식사 행사가 1월에도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방주교회는 매달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불우노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점심 행사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 열렸으며 김상우 목사가 "애국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자바의 인터넷 쇼핑몰 패션고넷의 이호목 사장이 식사를 후원했다.

미군을 당신의 선교지로 삼으라

한인들 대상으로 군목, 원목 등 채플린 지원 세미나 열린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군목이나 원목 등 채플린 지원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젊은 나이에 군대에 지원해 육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군대를 복음의 기지로 삼는 제자사역이다. 군인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는 군인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해 군내 사고와 갈등을 낮추고 전력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과거부터 한인 1.5세, 2세 목회자들에게는 군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목회 대상이 대부분 청년들인 데다, 타민족까지 아우르는 등 범위가 넓다. 미군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리더십도 키울 수 있다. 미군에게 제공되는 파격적인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까지 제공된다.

그러나 1세 목회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 기회가 낮았다. 그러나 오는 1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온누리교회(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90057)에서 US군목 및 채플린 세미나가 열린다. US군목및채플린연구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현역 군목들이 직접 참석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군목뿐 아니라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사역하는 채플린에 대한 정보도 나눈다. 세미나 등록비가 점심 식사를 포함해 35달러이지만 오전 8시 이전에 학생증을 갖고 등록할 경우, 전액을 주최측이 장학금으로 면제해 준다.

주최측은 이 세미나가 한인타운 내 개척교회 목회자나 목회 지망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리라 기대한다. 주최측은 한인타운 내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은데 사역지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개척 후 3년을 버티기 어려운 것이 이민목회"라 하는데 차라리 군목을 지원해서 전문적 목회 훈련을 받고 군 선교사가 되어 보란 것이다. 만약 20대 후반에 군목이 된다면 20년을 복무하고 제대해도 40대 후반으로, 개척이나 선교를 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다. 참고로 현역은 42세, 예비역은 45세까지 입대 자격이 주어지므로 나이가 많다고 해도 군목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군목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게 된다. 특히 군목 지원자의 체류 신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이민법 변호사가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다. 주최측은 유학생이나 서류미비자이더라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합법체류가 가능한 분들도 세미나에 초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미군 전체 군목 1,70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한인이며 예비군까지 합치면 한인 군목은 17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의) 김경렬 목사 310-502-9999
smkckim@gmail.com

나라정비 나라 오토 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M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자

류종길 미성대학교 총장

류 종 길 총장
미성대학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새해를 주셨습니다. 지난 해에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얼마나 자신들의 조국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나라 사랑을 읽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자기 조국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크롬웰과 링컨도 자기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심 없이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한국교회를 향한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신자가 목사와 장로를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회고해 볼 때, 1백만 명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1천2백만 명으로 늘었고, 세계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의 55%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한국교회는 커진 그 힘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희생의 모습과 민족을 향한 근심은 보이지 않고, 싸우는 추태와 말만 하는 빈 수레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 고국 땅도 고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2015년을 시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부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새해의 기도와 소망

강순영 JAMA 대표

강 순 영 대표
JAMA

2015년 을미년 양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우리 고국과 북한에 그리고 온 누리에 풍성히 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특별히 금년이 양의 해인데 목자되신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양들이 목자의 품과 목자의 우리인 교회로 대거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동안 JAMA 사역을 통해 한인교회들과 더불어 미국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위해 때로는 금식도 하며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특별히 2011년과 2014년에는 한인 수천 명이 다민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대부흥을 주시도록 역대하7장14절과 요엘2장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었는데 새해에는 기도의 응답들을 보고 싶고 이 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도시 도시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규모의 연합기도회들이 일어나며 이 나라의 정치계, 사법계, 교육계, 문화계, 경제계 리더들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1962년과 1963년 연방대법원의 결의로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금지시킨 후, 1965년부터 젊은이들 가운데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공립학교에 성개방, 성병, 마약, 폭력, 총기사고 등 온갖 범죄율이 대폭 증가했던 통계를 보면서 공립학교에 다시 기도와 성경 공부가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19세기 미국 대학가에 불길처럼 일어났던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운동들이 학생자원선교운동(SVM)으로 열매를 맺어 이 SVM 운동을 통해 미국의 젊은이들 20,000명 이상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파송됐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역사를 보면서 새해는 미국의 수많은 대학가에 부흥과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운동들이 불이 붙어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한 마지막 선교의 황금기가 이 땅에서 일어남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경건한 세대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 가정제도가 다시 회복되고 견고히 자리잡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파송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우리 한인들이 이제 미국의 부흥과 대각성을 위해 모든 도시에서 기도에 앞장서며 우리 2세들 가운데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세대들이 대거 일어나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영부인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영향력 있는 상하원 의원도 되고 명문대학 총장도 되고 교육부 장관도 되고 유명 영화 감독도 되고 빌리 그래함 같은 전도자도 되어 이 나라를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국은 금년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남북통일의 길이 마련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평양에 임했던 대부흥이 우리 고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임함으로 복음 통일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개독교라고 불리우며 욕먹는 한국교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을 체험한 우리 고국의 젊은이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안고 전 세계로 찾아가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고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섬기도록 우리 고국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을미년 새해는 곳곳에 이런 부흥의 모습들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인내와 노력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새 해

백지영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백 지 영 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양처럼 순결하고 겸손하며 새해 소망의 아침 햇살이 온누리에 비쳐,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갈등의 역사가 화해의 역사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 새로운 해에 대한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고 당찬 각오와 결심으로 새출발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희망이며 기대이며 계획 세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하며 인내와 끊임없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한 므나를 가지고 열 므나를 만들지만 게으른 사람은 한 므나를 그대로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책망 받고 빼앗겨 열므라를 남긴 사람에게 주듯이 기독교의 원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새해 새 것이라는 개념은 원래 헬라 철학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발걸음으로 더욱 더 힘차게 출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2015년 12월 마지막 달에 1년을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한 해"

이성현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총회장

이 성 현 총회장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지난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교수 617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미개오(轉迷開悟)를 선택했습니다. 전미개오는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의미를 담은 불교용어입니다. 속임과 거짓됨에서 벗어나 진실을 깨닫고 세상을 밝게 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들이 많이 선택한 사자성어는 격탁양청(激濁揚淸), 즉, '흐린 물을 씻어내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의미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사자성어로 만들어 보자면 경건훈련(敬虔訓鍊)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전 4:7)

경건은 쓸데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독'의 시간은 홀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 세상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잠 27:17)"고 했는데 거룩한 경건은 거룩한 자들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과의 만남의 훈련을 통한 경건의 연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과는 고독해져야 합니다.

경건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며 노력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는 중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철저하게 고독한 순간들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이제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훌쩍 커버린 아이들과 대화도 되지 않고, 아내는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도 어느 날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특히 주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누구 아내' 혹은 '누구 엄마'로 불리워 왔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입니다. 차례를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계속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안 나타날까?"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아내 이름을 불러 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 존재가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지 감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매일 매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도록 열심히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을 떠나 거룩한 고독을 즐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대각성과 교회 부흥의 한 해 되길

한기홍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 기 홍 대표회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우리가 맞이한 201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주 지역 4천여 교회와 각 지역 교회협의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사회를 축복하사 각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에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나며, 한인 2세들의 활동이 미주 사회에서 더욱 크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타민족들과의 교류와 협력, 화합을 통해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도발로 인한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지역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청교도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교에도 매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인 2세 교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발굴하여 한민족의 세계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일보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미주 지역을 순회하며 열방기도성회를 개최하여 미주 전역에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미기총은 명실공히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의 부흥과 사명을 위해, 동포사회의 권익과 한인 주류 사회의 신장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힘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며 미주 한인교회와 동포사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김기동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 기 동 회장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일을 행할 때에 새해가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일은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시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사55:6)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히10:25).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아름답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시133:2)" 보배로운 기름은 관유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제사장과 성소의 물건에 바르면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엡4:3) 치유와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은혜의 이슬이 내려 열매를 맺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133:3)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이슬로 인하여 땅의 식물들이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형제들이 연합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의 아름다움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여승훈 목사의 묵상칼럼

두 거목을 미워하라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현대 교회 안에는 세상의 이치라는 거목과 성공이라는 거목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 이 두 거목은 자신들의 세계로 사람들을 유도해 간다. 세상 이치의 거목은 세상 이치에 따라 매우 반듯해 보이는 도덕교육과 품위 있어 보이는 교양 그리고 상식이라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의 성향을 이야기 한다. 그리하여 매우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 사회적 신분의 품위나 교육 수준이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판단을 받는다. 사회적 가문의 배경 또한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판단을 받는다.

이런 경우 세상의 표준과 교회의 표준이 거의 일치하게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신분별, 학력별, 가문별로 보이지 않는 계층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그룹들끼리 가까운 교제를 가지게 된다.

지금은 소천한 고 하용조 목사가 오래전에 언급한 한마디 말이 떠오른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어떤 집사가 하용조 목사가 시무 하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첫번째 구역 모임을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구역 모임의 너무나 수준 높은(?) 분위기에 압도된 이 집사는 기가 죽어 자기는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담임목사였던 고 하용조 목사에게 말한 후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때 하용조 목사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라고 했다 한다.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수준 차이를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세상 이치라는 거목은 그렇게 세상의 잣대로 신앙의 세계를 가늠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성공이라는 거목은 어떤가? 성공이라는 거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독려해 간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식을 설정해 놓고 달려간다. 매우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자세로 삶에 임한다.

성공이라는 목표 때문에 헌신하고 성공이라는 목표 때문에 희생한다. 또 성공이라는 목표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한다. 더 나아가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때때로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혹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등장하면 주저함없이 과감하게 걷어내 버린다. 시중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대세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정말 기독교 안에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대세"처럼 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 글을 올리는 것은 헛된 거품을 빼자는 것이다. 만약 헛된 거품을 빼지 않고 2015년을 출발해 달려 2015년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면, 틀림없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후회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성공주의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스스로의 성취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허황된 성공주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실체가 사실은 없다. 다만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할 뿐이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만다. 실체가 없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 잡혀 가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성공주의를 추구 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허황되이 붕 떠 있을 뿐이지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려운 고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성공주의가 낳는 또 하나 병폐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다. 세상이 물질의 떡을 원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 떡을 제공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세상이 화려함을 원할 때는 최고로 빛나는 분위기로 만들어낸다. 그것이 세상을 전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둘째 딸이 5살때의 일이다. 그때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살고 있었을 때다. 여름철이면 건조하고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이가 스프라잇을 그렇게 좋아했다. 집만 나서면 스프라잇을 원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스프라잇을 사 주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이의 이빨을 보는 순간 충격적이었다. 이빨이 녹아서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아무리 원해도 스프라잇을 사주지 않았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준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원하는대로 주다 보면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성공주의의 관심은 대부분 사람에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민첩하게 움직인다.

자, 세상의 이치라는 거목과 성공이라는 거목의 실태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무엇인가 빠져 있다고 느끼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 두 거목에 동참하는 이들은 반사적으로 십자가는 항상 품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맞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는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고 있다는 것과 그 필요성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이치와 성공이라는 두 거목이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거목이 추구하는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진리의 절대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거목의 소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 그리고 사람의 평판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지함과 순수함으로 서 보라. 사람의 평판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 매어 달려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 아니 할 수 없다. 사람의 평판이나 가시적 성과들은 세월따라 모두 다 지나간다. 눈을 들어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실체와 허상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 이치와 성공을 지향하는 두 거목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영원토록 서 있게 될 것이다.

W M S

WISDOM MISSION SCHOOL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맞춤식 교육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계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4번째 간증〉 OOO 학생 나는 10학년 때 유학 와서 학과 공부도 따라가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 필수인 AP 과목들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위즈덤미션스쿨로 오게 되었고 내가 뭘 해야 할 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공립학교에서 주는 비효율적인 숙제나 프로젝트 대신 위즈덤미션스쿨에서는 그 시간들을 AP와 SAT 맞춤식 교육으로 대입 준비의 기초를 잡아 주었다.

선생님들과 카운셀러도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셨고 7개나 되는 과목들, 1400점에서 시작했던 SAT가 2140점까지 올라갔다. 6년째 약대를 4곳 다 합격했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학교에 감사드린다.

〈다음 호에 계속〉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신년사〉 곽덕근 샌퍼난도밸리한인교역자협의회 회장

곽 덕 근 회장
밸리교협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새 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15년 말에,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4:14절의 말씀처럼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쉬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해 쉬었다가 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등에 메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12:1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처럼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새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다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무조건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오늘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과거 속에는 천진난만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고,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다 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앞에 놓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것들은 나를 무력화시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잊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 가운데는 자랑스런 과거도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들, 과거에 크고 작은 영적 승리를 거둔 경험들, 과거에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달려가는 삶에 방해가 된다면 잊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됐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며 만족해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놓여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2.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여기서 '달려가노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오코'인데, 이 단어는 '추적한다'라는 의미로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 사용되었습니다. 토끼를 잡으러 갔으면, 한 마리를 정하여 추적해야 합니다. 두 마리를 좇다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달리기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달릴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푯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 스코폰'이라 합니다. '푯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히 12:1, 2).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성공을 푯대라고 잘못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푯대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을 푯대로 삼아 달려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십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한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절). '오직 한 일,' 영어로는 One Thing I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런 '부름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2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며 정계, 교계 지도자들이 조찬기도회를 캘리포니아 주청사에서 드렸다. ⓒOC교협 제공

기도와 헌신으로 미국 살리는 한민족 되자

미주 한인의 날 기념하며 정계 · 교계 지도자 기도회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며 교계 지도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청사에서 1월 12일 조찬기도회를 드렸다. 이 행사에는 영 김 주하원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정계 지도자와 함께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와 새크라멘토교회협의회, 미주한인재단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04년 1월 12일에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은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로 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그 다음해인 2005년 12월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연방의회 상하원도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기념하는 조찬기도회에서 사회는 OC교협 회장 김기동 목사가 맡았으며 대표기도는 부회장 송규식 목사, 설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했다.

한 목사는 "우리 한인은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민족으로, 새벽기도회를 통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이며,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민족으로 잘 사는 커뮤니티, 잘 사는 주, 잘 사는 나라에 이바지하는 민족이며, 어느 민족보다도 교육열이 강한 민족으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시켜 차세대 리더들을 육성하는 민족이다"라고 강조한 뒤 "미국과 세계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해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해 준 이 나라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어 영 김 주하원의원이 환영사를 전하고 미주한인재단 명예전국총회장 박상원 장로가 감사 인사, 새크라멘토한인회 박상운 회장이 축사했다.

이어 OC교협 수석부회장 민승기 목사의 사회로 본격적인 기도회가 시작됐다. 부회장 이호우 목사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새크라멘토교협 회장 김숭 목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정치인들을 위해, OC교협 부회장 윤덕곤 목사가 한국의 정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OC평신도연합회 회장 윤우경 집사가 다음 세대들의 교회 정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OC교협 이사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이후 정오부터 주 하원 의회에서 2015년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있었다.

김준형 기자

총신 남가주 동문들 2015년 하례회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총동문회가 2015년을 맞이해 신년하례회를 드렸다.

13일 영생장로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총신 신대원 동문들과 그 아내들이 참석해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다.

행사는 이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정완기 목사가 기도하고 이규만 목사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을 봉독했다. 이어 동문회장인 김혜성 목사가 "복을 주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는 임균만 목사가 헌금기도를 하고 원성택 목사가 광고하고 이배형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동문들은 이정현 목사의 인도로 한국과 미국을 위해, 총신대 신대원을 위해, 교단 총회와 임원, 교회를 위해, 전세계의 총신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총동문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5년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과정)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과정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e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타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쇼설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자동차 도네이션

아리조나 인디오 선교사에게
자동차가 절실 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눅 6:38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el. 424 – 220 – 0360 (전 에스더 선교사)
213 – 718 – 1512

복된 귀 복된 입술

엄 영 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유명한 어느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다. 자기가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부터는 방송에서 신나게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부풀어 있을 때, 한 선배 아나운서가 말을 많이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나운서가 되고 보니 그 말이 얼마나 좋은 충고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아나운서는 말을 잘 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바른 말 정확한 말을 하려면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나운서의 말은 언제나 정확하되 가볍지 않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느낌을 주었다.

목회자도 아나운서와 비슷한 면이 있다. 목회자는 이런 저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설교도 목회도 잘 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목회자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 경우,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말을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목회자나 성도 모두에게 유익하다. 굳이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가 하소연하고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은 그저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거듭거듭 체험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야고보서 1:19절의 말씀처럼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 습관이다.

때론 어딘가를 향해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말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애매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것이 아니라고 일일이 해명하고 속이라도 뒤집어 보이고 싶은 순간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 순간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허탈해지고 괜히 했다 싶을 때가 많다.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묵묵히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나면 언젠가 훨씬 더 바르고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곤한다. 말하는 사람도 훨씬 더 잘 준비되고 듣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잘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경험과 지혜가 많은 목회자나 성도일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벙어리 목회자, 성도의 모습을 본다.

경험 많은 어떤 목회자는 심지어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해 와도 듣기만 하고 말은 별로 하지 않는다 한다. 상담을 원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미 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껏 들어주되 목회자가 무슨 신통한 지혜나 있는 것처럼 함부로 해법을 제시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절대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2015년에는 우리 모두가 복된 입술과 더불어 복된 귀를 가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되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쌓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선택이 중요하다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우리 일상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으로 가득 차 있다. 운전을 하면서도 어떤 길로 운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대화 중에도 수많은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움을 위해서는 학교를,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인생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함부로 덥석 아무 것이나 선택하면 안된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풀리면 지혜로운 영적 멘토를 만나야 한다. 인생의 승부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왕벌은 원래 여왕벌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 벌에게만 '로얄젤리'라는 특별한 것을 먹인다. 똑같이 태어난 벌의 유충에게 평범한 꿀을 먹이면 일벌이 되고, 로얄젤리를 먹이면 여왕벌이 된다. 마찬가지로 큰 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이 달라야 한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강국을 꿈꾸는 우리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이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의 재임시, 노예 해방이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치열한 내전을 치루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남과 북 양쪽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남북전쟁은 7년이나 지속되었다. 마침내 한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면 금방 승리할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때 링컨은 대답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 관심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일 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표현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 아무 것이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적,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최후의 승리는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는 자의 몫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왕자와 거지

현 순 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왕자는 절대자의 상징이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에게는 순종과 복종만이 요구된다. 지혜로운 왕자는 선왕의 장단점을 잘 관찰하고 수업을 잘 받아서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백성들을 위해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다. 그러나 못된 왕자는 부친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일찍부터 주색에 빠지고 왕이 된 후에도 정신 못차리고 폭정을 하다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거지에게는 있는 것이란 목숨뿐인데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다. 그러나 배부르고 잠자리만 있으면 만족하며 하루 하루를 기쁘게 산다.

왕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기업주의가 대신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행세하게 되었다. 벼락부자 졸부들의 자녀들도 생겨났다. 요즈음 대한항공 C부사장의 오만과 법을 벗어난 무례한 행동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고 다른 기업가들의 후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늘날 그 기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고 성장하기까지, 창업한 할아버지는 돈보다는 봉사한다는 철학이 있었고, 또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고객인 국민들도 국익을 우선했기에 회사의 모든 부족한 면도 감수하며 그 기업성장에 일조해 왔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후손들이 잘 모르는 듯 하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기업체의 3세가 되는 톰이 있다. 그는 이렇게 공언한다. "이 기업체는 우리 가족의 것만이 아니고 직원들과 소비자들의 것입니다"라고. 처음 이 공장을 시작한 할아버지 빅터는 유럽에서 이민왔다. 처음에는 작은 세탁소로 시작해서 오랜 노력 끝에 공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300여곳의 세탁물들을 처리하는 큰 공장으로 성장시켰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사풍이 있다. "일하는 직원들을 동업자로 대하라, 직원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라." 그들의 생일과 기일에는 꽃과 더불어 작은 봉투를 전해주고 연말에는 보너스가 지급된다. 그런 사풍은 아버지를 거쳐 톰에게도 이어지고 공장에서 노동자 복장으로 같이 일하고 있어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간다. 톰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방학 때는 공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일하고 또한 주급을 받았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글은 두고 두고 오래 남는 교훈이다. 왕자 에드워드는 우연한 기회에 거지 톰 캔티를 만나서 친구가 된다. 어느날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옷 주인처럼 행동한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혹독한 거지 생활을 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다른 세계를 체험한다. 그는 훗날 왕이 되어 선정을 베풀도록 노력하면서 거지 친구를 보살펴준다. 오늘날 한국 기업주의 자손들도 왕자 에드워드와 같은 훌륭한 기업후계자가 되었으면 한다.

목회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하시며 이기셨다는 것, 더욱 왕의 왕이신 그 분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것을 본받아 교인들의 희비애락을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왕과 같은 환경이 되어도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거지처럼 될지라도 만족하며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 심장, 뇌 혈전용해 |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자폐증.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쥬스에 갈아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되고 시력,피부,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우울증.불면증.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변비.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혁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 옴. **미세스 곽(뉴저지)**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가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똘똘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앉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36

잡시방약(雜施方藥)이라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시험삼아 처방하여 본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분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분은 직장암과 대장암의 말기라서 수술도 할수없고 나이도 많이드셨으니 이제 집에가서 좋은 음식이나 드시다가 가시라고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77세이고 얼굴은 시꺼멓고, 온몸에 불룩불룩 혹이 여기저기에 솟아 있었습니다. 대변을 몇년째 못보고 가끔씩 아주 적은량의 물변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레도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본인이 수술하기를 원하지 않다고 하는 중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인의 믿음이 워낙 강하셨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첫날부터 18일 동안에 몸속에 쌓였던 거의 모든 노폐물들이 대변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때에 직장암과 대장암 피 덩어리도 같이 다 나와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시꺼멓던 얼굴색도 마치 얼굴 안쪽에 형광등을 켜 놓은것같이 아주 밝고 환안한 색으로 변했고, 울록불룩 나와있었던 커다란 혹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8일만에 새 생명을 찾게되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렸던것은 교회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었는지는 잠시 성경말씀을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6장20절부터와 마태복음5장 3절부터는 산상수훈 또는 8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3절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과 5절은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나오는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7절의 긍휼히 여기는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전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11절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전도를 함으로써 6절의 말씀 배부를것이요 를 이루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직장암, 대장암 말기의 환자가 18일만에 완치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를 치료제라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만, 영양제를 먹고 치료가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흙의 식물에서 췌치한 미네랄를 드시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후에 영양이 각세포에 공급이 되어지므로 시들었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몸이 되살아 나게 됩니다. 무슨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예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818.642.8223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랜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소망소사이어티 2015년 사역 시작

소망소사이어티가 2015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을 했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을미년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무식을 30여 명의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전 열었다. 최경철 목사의 사회와 이중열 이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라팔마연합감리교회 김도민 목사는 새해를 맞아 마음의 다짐과 감동을 나누는 말씀을 전하며 소망의 사역을 축복했다. 주혜미 사역부장은 2015년의 사역에 대한 계획과 각오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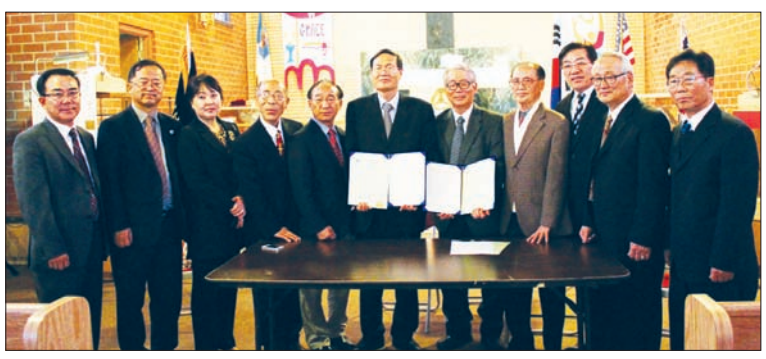
이어 소망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유태윤, 김병희, 이범영 홍보대사에게 대통령 수여 봉사자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Gold)이 전달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며 금상과 뱃지를 수상했다.

또한 소망소사이어티 창립부터 지금까지 각종 행사와 교육세미나에서 150여회 이상 불리운 소망의 주제곡 '아름다운 삶 위하여'를 작사, 작곡하여 함께한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주혜미 사역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분자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균수명이 길어진 지금 시대에 소망소사이어티는 연장자 사역을 위해 더욱 힘낼 것을 다짐하며 그동안 함께한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시무식과 식사 후 참석자들은 버켓리스트 작성, 타임캡슐 담기 등 나눔의 시간도 보냈다.

김나래 기자

미주대한신학대-강릉영동대 MOU 체결



미주대한신학대학과 강릉영동대학이 MOU를 체결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과 한국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영동대학이 MOU를 맺고 상호 유대 관계 증진과 협력에 나선다. 11일 오후 3시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강릉영동대 총장 정창덕 박사가 직접 참석해 미주대신대 관계자들과 MOU에 서명했다. 이 MOU를 통해 두 대학은 교수 및 학생 교류, 학점 인정 등 다양한 공동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1963년 설립된 강릉영동대학은 Amazing 2018 비전 아래 학생들을 국가와 사회의 리더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보건 분야 특성화 선도 대학, 취업률 75% 달성 대학, 서비스 교육 중점 대학을 지향하며 2012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강화 우수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회자이기도 한 정창덕 박사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기적적 치유를 경험한 후, 노숙자 재활센터 등을 설립해 기독교 사회봉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초 강릉영동대 14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효사랑선교회를 섬기는 김성미 씨, 김영찬 목사, 김영혁 씨.

주변 노인들부터 돕는 것이 바로 효 실천

효사랑선교회 시민권 인터뷰 교실 열어

부에나팍에 있는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한인 노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돕기 위한 시민권 인터뷰 교실을 지난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고 있다. 효사랑선교회는 시민권이 없어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이 교실을 지난해 처음 열었다. 부에나팍 사무실에서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열린다. 올해 2월 놀웍에도 지부가 개설되면 이곳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이 강좌는 시민권 인터뷰 전문강사인 김성미 씨가 맡는다.

김성미 씨는 "이번 시민권 인터뷰 교실은 한인 시니어들이 미국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시니어뿐 아니라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가주 지역에 한인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효사랑선교회는 2002년 설립돼 웰페어 문제 등 사회보장 관련 안내는 물론, 이민생활에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부부문제, 자녀와의 갈등, 건강, 재정 등의 문제도 상담해 주고 있다.

이 선교회의 대표 김영찬 목사는 "한인 노인들이 황혼기에 존경받고 값지고 보람된 삶으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미국생활을 하면서 노인들이 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교회는 차세대들에게 성경적 효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재를 제작 중이며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혁 씨는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과 선조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순교로 신앙을 지켰다"며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선조들을 본 받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운동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선교회는 ▲효 캠페인 ▲ABC 통합교육구 다민족 장학금 수여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신앙의 뿌리 찾기 ▲관계회복 교실 ▲시민권 인터뷰 교실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 봉사 ▲양로병원 예배 사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영적 대각성 위한 전국적 기도회 시작

미기총 주최, 남가주 지역은 22일부터 4일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한기홍 대표회장)가 지난해 11월 11일 얼바인 버라이즌극장에서 열렸던 다민족기도회 이후 본격적으로 한인교회 중심의 중보기도운동을 시작한다. 한기홍 대표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한인교회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기총은 올해 남가주를 시작으로 2월 달라스, 3월 뉴욕, 4월 워싱턴DC, 5월 시카고, 6월 시애틀 등 전국에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기도대성회를 개최한다. 그 첫 행사는 은혜한인교회에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JAMA와 OC교협, OC목사회, OC평신도연합회 등이 주축이 되어 함께 진행한다. 강사는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아틀란타장로교회 정인수 목사, 뉴욕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다.

18-19일 풀러 동문들 가족 수련회

풀러신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주최, 한인M.Div.동문회(회장 신동희 목사) 주관으로 오는 18일과 19일에 가족수련회가 열린다. 주최측은 "동문가족 간의 친교 및 목회정보 교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전했다. 장소는 미라클스프링스 리조트(10625 Palm Dr. Desert Hot Springs, CA 92240)다.
문의) 310-920-9892

"쉬운 전도, 되는 전도"는 예심전도대학에서

미주 예심전도대학 제10기가 새해를 맞이해 1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에 개강한다. 13주간 이 대학에서는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불신자도 매력을 느끼는 전도"를 가르쳐 준다. 예심전도대학 등록 대상은 목사와 사모, 전도사뿐 아니라 평신도로서 전도에 열정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환영이다. 장소는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habra, CA90631)이고 문의는 전화 714-401-9874로 하면 된다.

나성소망교회 재정교실, 무료 영어교실 연다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가 기독교인의 재정 관리에 관한 "청지기 재정교실"을 연다. 이 재정교실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회 교육센터(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90015)에서 개최된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영어교실도 10주간 연다. 강사는 김진국 목사이며 2월 1일 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윌셔팍초등학교(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90005)에서 열린다. 문의)213-550-7377

행복이 가득했던 열방교회 뮤지컬

"내 인생을 바꾼 해피뉴이어"

기독 연예인들의 특별한 무대로 신앙과 감동 모두 충족

열방교회에서 열린 "내 인생을 바꾼 해피뉴이어"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김용만, 표인봉, 송은이, 김선경, 전영미 등 유명 기독 연예인들이 뉴욕을 방문, 특별한 끼와 재치로 웃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뮤지컬 "내 인생을 바꾼 해피뉴이어" 공연이 4일(주일) 열방교회(담임 안혜권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뮤지컬 공연은 기독 연예인들을 통해 이웃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이티 고아원 설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공연에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물론 타교회 성도들도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개그맨과 가수들로 구성된 뮤지컬팀들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개그 포맷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심는 방식으로 무대를 꾸미며 큰 웃음과 함께 감동을 선사했다. 꽁트와 댄스, 음악, 간증이 연속으로 이어졌던 이번 뮤지컬은 그 다채로운 무대만큼 또 다양한 간증과 은혜를 선사했다.

개그맨 김용만, 송은이, 표인봉 등은 무대가 바뀔 때마다 간증을 전했고, 친근한 연예인들의 생생한 간증은 참석한 이들이 더욱 쉽게 복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날 연예인들은 크레용팝의 히트곡 '빠빠빠'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입혀 신나는 댄스곡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팝페라 가수인 스텔라는 "넬라판타지아"를 불렀다. 가수 길건은 히트곡과 함께 힘찬 댄스 무대를 선보였고, 표인봉의 딸 표바하 외 2인도 '주께 맡겨'와 'Rolling in the Deep' 등의 댄스곡을 공연했다. 개그맨 겸 가수인 이정규는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CCM곡을 소화했다. 희극 배우 전영미는 성대모사와 함께 재미있는 꽁트를 송은이와 함께 연출했다. 큰 웃음을 주는 꽁트 형식이었지만 청중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자신이 짠 맛을 내는지 단 맛을 내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순서로 진행됐다.

순서 사이사이에 진행됐던 개그맨들의 간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화려한 세상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두 방향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신앙을 충실히 지켜왔던 이들의 속깊은 간증과 찬양은 참석한 이웃들에게 큰 감동이 됐고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뮤지컬의 모든 순서들은 단발적인 꽁트와 댄스 무대가 아닌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공연이었다. 표인봉이 직접 연출한 이 뮤지컬은 각각의 장면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는 듯하지만 모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극이 진행되면서 최종 후반부에는 "방향"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뮤지컬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은 분명했다. 표인봉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개인의 행복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또 인생의 길을 걷다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로마서 8장26절에 소개된 '성령님'이시다. 오늘 이 공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해피 뉴이어 공연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만은 2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이후 우연히 참여하게 된 아이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은혜롭게 전했다. 송은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암투병 중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것과 이를 계기로 신앙을 가지게 된 어머니가 제일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간증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신앙하는 데서 오는 큰 행복을 전했다.

안혜권 목사는 뮤지컬 공연 이후 연예인팀들과 참석한 성도들과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아이티 현장의 상황들을 전했다. 안혜권 목사는 "한국에 부흥회를 갔다가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아이티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연예인들이 5억 원을 개인적으로 헌금해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것이 이번 뮤지컬 팀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 이 분들이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바자회를 열고 땀흘리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하며 연예인팀의 아이티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증거했다.

안혜권 목사는 또 "지금 아이티에는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어린이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뮤지컬을 통해 얻은 기금은 전액 이 중증장애자를 위한 고아원 설립기금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방교회는 지금까지 아이티 선교를 통해 현지에 학교를 짓고 책·걸상을 직접 현지에서 제작, 제공했다. 또한 교육시설과 다양한 돌봄사역을 통해 한 마을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중증장애인 고아원 건축은 올해 4월 13차 아이티선교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대원 기자

"내 인생을 바꾼 해피뉴이어" 공연에서 개그맨 김용만 집사가 은혜로운 간증을 전하고 있다.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 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 30
이 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inholy@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 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7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R대안학교(67와 라파에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7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386-2233 / www.LAsara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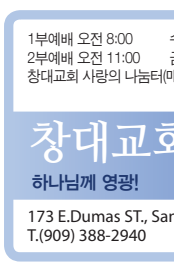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or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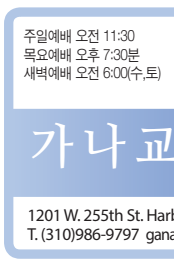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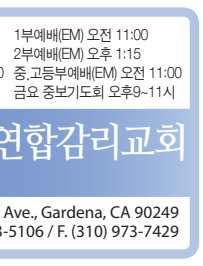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 목요예배 오후 7:30분 /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 영어예배(EM) 오전 11:30 /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e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2:00 /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 2부예배(EM) 오후 1:15 /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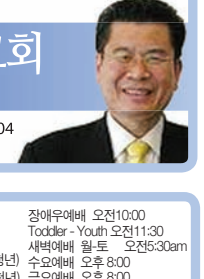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11:45 / 주일학교 오후12:00 /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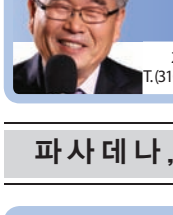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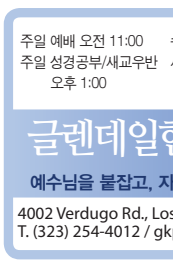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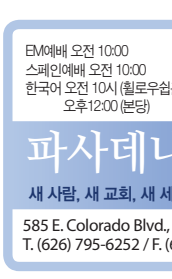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10:00 / Toddler - Youth 오전11:30 /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am /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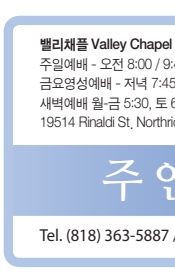
주일 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 스페인예배 오전 10:00 /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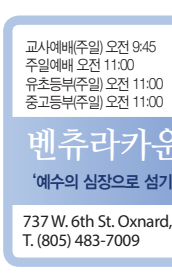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 주일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 구역모임 매월 1회 / 한글학교(토) 오전 10:30
조 인 담임목사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새해를 여는 노방전도
뉴욕전도협의회의 복음전파 열정

뉴욕전도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첫 노방전도를 지난 3일 실시했다. 노방전도는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뤄지고 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예수 짜이지훈 꽈일러."
"쎄아 펠리즈 흔또바 에수스크리스토스."

2015년 첫 토요일인 3일(토) 아침 유니온 스트릿과 메인 스트릿이 만나는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힘찬 목소리가 들린다. 뉴욕전도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노방전도하며 거리를 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소리다.

뉴욕전도협의회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플러싱 공영주차장 일대를 돌며 한인, 타인종 가릴 것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새해 첫 토요일 얼음이 어는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지난 3일에도 어김없이 뉴욕전도협의회 회원들은 거리로 나와 거리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

노방전도는 최근 교회들이 관계전도에 치중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있다. 뉴욕에도 이런 거리의 전도자를 만나기 어려워졌다. 미국 이민이 계속되던 시기, 한인교회가 성장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길거리 전도자들 또한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민도 그치고, 교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길거리 전도자를 만나기도 어려워졌다. 덩달아 이민교회들의 성장도 몇년째 정체 중에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뉴욕전도협의회 회원들은 다시 이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에 나서고 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미주의 어느 곳보다 열정적이었던 뉴욕에 다시 전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뉴욕전도협의회는 지난 해부터 전도지 20만부를 발행해 뉴욕의 교회들에 배분했다. 구닥다리 전도지의 부활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효과는 매우 컸다. 뉴욕뿐만 아니라 가까운 뉴저지를 비롯해 먼 타주에서까지 전도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2015년을 여는 첫 토요일 아침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협의회 회원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힘찬 것도 바로 노방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이다.

3일 아침 노방전도는 8시10분에 전도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했다. 회장인 허윤준 목사는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다. 허윤준 목사, 김영환 목사, 김태욱 목사는 복음의 메시지가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르고 각자 구역을 나눠 흩어져 전도를 시작했다.

전도는 한국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전도지에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총 4개 국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한면에는 4개 국어로 된 복음의 메시지가 적혀 있고 또 한 면에는 뉴욕 교회들이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전도협의회 회원교회들 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전도지는 뉴욕의 전체 교회들이 다함께 부흥하기를 바라는 전도협의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전도협의회가 다시 시작한 노방전도는 뉴욕교계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노방전도 사역을 통한 전도협의회의 2015년 사역이 주목된다.

김대원 기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런 부르심
"은혜와의 만남"

정현 목사 초청 성약장로교회 신년부흥회 은혜 가운데 마쳐

성약장로교회 신년부흥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다.

성약장로교회(담임 황일하 목사)가 "2015년 신년 부흥회"를 개최했다. 린치버그침례교회 공동 담임목사이자 리버티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및 설교학 교수인 정현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고 그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런 부르심 은혜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말씀을 전했다.

9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부흥회 첫날 누가복음 5장 1-11절을 본문으로 정현 목사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모르고 체험하지도 못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져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서두를 뗀 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곧 은혜와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 은혜와의 만남을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과거의 영적 관성을 부수고 구별되고 첨 제자된 삶을 살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며 신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윤수영 기자

다음세대 위한 더 좋은 여교역자가 되자

2015년 애틀랜타 여교역자 협의회 첫 모임

애틀랜타여교역자협의회가 신년 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 여교역자회(회장 고춘자 목사) 1월 신년모임이 8일(목) 오전 11시, 하베스트교회(담임 정영숙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일년을 결산하고 2015년 새해 사업계획 발표 및 예산안 인준 위한 상정에 이어 새 임원단 소개가 있었다. 1부 예배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7절까지의 말씀으로 고춘자 목사가 "사역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고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며 "2015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좋은 여교역자가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된 사역자가 되자"고 권면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하현일 목사의 서기보고와 이숙자 전도사의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회계보고를 한 이숙자 전도사는 "2015년에는 부지런히 회원들을 돌보고 더욱 사랑을 나누는 여교역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달 $50로 멕시코의 이미화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선정했다.

이어진 합심기도시간에는 2015년 여교역자 일년 사업계획과 활성을 위하여, 세계선교와 고난받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청소년, 2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임원단은 감사-박용돈 목사, 회장-고춘자 목사, 부회장-정영숙 목사, 총무-김자영 목사, 서기-하현일 목사, 회계-이숙자 전도사, 김성숙 선교사이다.

윤수영 기자

PCUSA 한인총회장

"결혼 정의로 내적 소모 많았다"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두고 PCUSA내에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PCUSA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의 총회장 이영길 목사가 신년 메시지를 통해 "무척 어려운 한 해였고 결혼의 정의로 인해 내적인 갈등에 많은 소모를 했던 해"였다고 지난 해를 평가했다.

이어 이영길 총회장은 "도리어 이 상황은 우리가 밧줄에 매인 사자임을 보게 했다"면서 "2015의 축복된 한 해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우리가 사자의 용맹을 되찾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사역과 관련, "국내선교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역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교단 총회에서 시작한 1001 New Worshipping Communities 사역을 통해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전도 전략을 세워가고 있으며, 해외선교위원회도 구성돼 올해 중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꽃이 피게 될 것을 기대했다.

PCUSA는 지난해 총회에서 동성결혼 주례 허용 및 전통적 결혼 정의 변경안을 받아들였다. 주례 허용안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결혼의 정의에 대한 변경안은 올 한 해 동안 각 노회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혼 정의 변경은 '남녀'의 결합으로 결혼을 규정했던 전통적 문구를 '두 사람'으로 바꿔 사실상 동성결혼을 교단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NCKPC는 PCUSA 총회의 이같은 결의에 대해 즉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결연히 저지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대원 기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화평장로교회, 교회 이전 감사예배 은혜 가운데 마쳐

화평장로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화평장로교회(담임 김용환 목사) 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다.

11일(주일) 오전 10시 45분 진행된 감사예배는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인도로 시작해, 신순길 장로의 대표기도,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찬양, 충성 다락방의 성구암송 등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고인권 장로의 "교회 이전 과정의 소감과 감사'" 나눔이 특별 순서로 마련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땀흘리며 수고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또한 교회 이전 과정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동영상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회고하며 감사했다.

김용환 목사는 시편 127편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란 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의 섬김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헌신이 새롭게 되길 소원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했다.

문의는 전화 770-963-3214, 홈페이지 http://www.atlpmc.com를 통해 할 수 있다.

신디 김 기자

O.C./얼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로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계시록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i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1부 9:00am
장년2부 11:00am
Youth 예배 12:15pm
Children 11:00am
EM 1:30p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0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새벽예배 :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본당)
E.M예배 오후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이스라엘 셰미나 :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묵상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아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www. 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염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미라팜-22
MIRAPHARM-22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22세기형 생명공학적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자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1. (60대 남)-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2.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3. (47세 여) – 구안와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4.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5.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6.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가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7. (84세 여) – 만성숙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8.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투브에서 "뇌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옴

9.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10.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11.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12.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13. (50대 여) – 밤새 잠을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14.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15.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16.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17.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틀 복용 후 멈추었다.

18.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뚝 떨어졌다.

19.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20.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21. (50대 여 외국인) - 처제가 유방암 수술 후 재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몰내)
LA 본점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우리가 닮아야 할 선배들, 주기철 · 손양원 · 박윤선 목사

한복협서 신동우 · 유관지 · 김윤희 · 이윤재 · 최이우 · 이철 · 안만수 목사 등 발제

한복협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9일 분당한신교회에서 열렸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9일(금) 오전 분당한신교회(담임 이윤재 목사)에서 '내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을 주제로 열렸다. 총 7명이 발제자로 나섰고,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가 기도회 설교를, 전병금 목사(강남교회)가 발제 종합을 각각 맡았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서만수 선교사님을 추모하면서'를 제목으로 발표한 신동우 목사(산돌중앙교회)는 "선교의 거룩한 부담을 안으시고 열방을 지켜내신 서만수 선교사님, 항상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신 선한 청지기셨던 선교사님"이라며 고인을 회고했다.

신 목사는 "이제는 천국에 가신 형님 선교사님에게 '더욱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가 된다. 큰 그릇의 형님께서 작은 그릇의 아우들을 챙겨주시는 배려는 잊지 못할 추억"이라며 "생사의 기로에서 의식을 회복하던 날 제가 손을 잡아드렸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 어서 일어나야지' 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추모했다.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 중국선교의 개척자 故 홍종만 선교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목사는 "홍 선교사님은 원래 일본 선교를 원했으나 비자 문제로 홍콩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홍 목사님은 홍콩한인연합교회 3대 담임자로 목회하면서 교민사회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당시 홍콩은 외부세계와 중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홍 선교사님은 그 점을 활용해 중국선교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홍종만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재개기의 여명을 장식하신 분"이라며 "한 중국선교 전문지에 홍종만 선교사의 아들인 홍성직 집사가 '아버지 홍종만 선교사'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 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 실무자들이 많이 놀랐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그분은 나의 진정한 스승이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단다. '이런 신앙인, 이런 성직자, 이런 헌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새롭게 가져본다"고 했다.

다음으로 김윤희 박사(FWIA 대표)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보넷 브라이트 여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보넷 브라이트 여사는 국제CCC(현재 이름은 Cru)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의 아내이자 국제 CCC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김 박사는 "여사는 자신이 믿는 대로 살고 말하는 분이다. 전 세계의 CCC 간사들에게,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해 온 지상명령 성취의 꿈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닌 '불가능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이라며 "저는 여사를 만날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저를 겸손하게 하면서 '이런 신앙의 모습이 가능하구나'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브라이트 여사를 회고하며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분은 내적인 힘을 북돋워 주는 묘한 영적인 도전을 준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보넷 브라이트 여사야말로 내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변해 주는 멋진 여성이자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잔느 귀용의 영성'을 제목으로 발표한 이윤재 목사(분당한신교회 담임)는 "귀용은 '고난을 그만큼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고난의 풀무불을 지났고, 그런 중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만나 정금같이 단련된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산 사람"이라며 "잔느 귀용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씨름했던 영성적 주제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잔느 귀용이 씨름한 영성적 주제를 △자기 포기 △낙심하지 않는 연습 △유혹이 올 때 △영적 메마름 △공급 △하나님과의 연합 등 여섯 가지로 꼽았다.

아울러 그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순간 순간 하나님에 만족하는가, 과연 모든 염려를 던져버린 채 낙심하지 않고 있는가, 유혹이 올 때면 어린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가, 영적 메마름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 은혜의 공급을 젖 빠는 아기처럼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할 제목"이라고 역설했다.

'순교적 신앙을 가르쳐 준 주기철 목사님'을 제목으로 발표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담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애국인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간 것이 신사참배 반대로 나타난 것이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위한 애국으로 신앙이 더욱 공고히 된 것이 아니"라며 "나는 주 목사님의 신앙에서 이 신앙의 정도를 배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신앙을 지키다가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셨다. 주 목사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숭고한 순교의 삶이, 이 시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외침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철 목사는 '내가 본받기 원하는 목회자, 손양원 목사님'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본받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답고 큰 것은 그의 용서와 화해의 삶"이라며 "그는 정상인이셨으면서도 장애인들, 병자들 세계에 뛰어드셨다. 심지어는 자기 두 아들이 살해당했지만 그 사이에서 위대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화목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이 목사는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목회할 수 있었으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정녕 우리가 본받기 어려운 선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모범"이라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목자상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 정암 박윤선 목사'를 제목으로 발표한 안만수 목사(화평교회 원로)는, 140여명의 인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집필한 책 「박윤선과의 만남」의 내용을 소개했다. 아래는 그가 인용한 것들 중 하나.

"그분의 삶 속에 그의 신앙과 신학이 녹아나 있으십니다. 철저히 겸손하시고 진실하시고, 과장이나 가식적인 것이 전혀 없는 신앙인의 '참 모습'을 나는 그분에게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그런 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구나 하고 어떤 의미에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손봉호 교수/만남 1권/73쪽)

이들의 발제를 종합한 전병금 목사는 "누군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인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며 "그분들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분들을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소개된 분들의 신앙과 삶이, 보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기도회에서 '닮고 싶은 사람'(행 10:1~8)을 제목으로 설교한 이정익 목사는 로마의 군인 장교였던 고넬료를 소개하며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또 백성을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참된 모습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인데,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지도자상"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한복협 회장 김명혁 목사는 이날 발표회에 대해 "요즘 다들 너무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배들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며 "존경할 선배가 없는 사람은 아주 불행하다. 기독교 역사 속에 훌륭한 선배들이 많다. 이론이 아니라 살과 피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신 분들이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귀한 발표들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총회에서는 진재혁 목사(분당지구촌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광태 목사(화평교회), 권오륜 목사(발음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조봉희 목사(목동지구촌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를 중앙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진영 기자

이정익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공동주최: 라디오코리아, 한국일보,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el : 323-735-3000 Fax : 323-735-3111
Email:koreanchurch981@gmail.com
Website:scalck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사랑의 쌀

절취선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우리 생활의 기본인 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절취선

* 사랑의쌀은 개인신청을 기본으로 신청한 1인에 1포, 한 가정에 최대 2포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한가정 2포일경우 2명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단체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은 1) 신문 및전단지 2) 웹사이트 3)이메일을 쓰실수 있습니다

1) 신문 및 전단지: 측면의 신청서에 정보를 기입하시고 남가주교협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5 "사랑의쌀 담당자 앞"

2) 웹사이트: http://scalckc.org의 '사랑의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3) 이메일: koreanchurch981@gmail.com로 신청서파일 (.doc)을 보냅니다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6차 2014 사랑의 쌀 신청서

이름(name)	
이메일(email)	
연락처(phone)	
주소(Address)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하신 주소로 쿠폰이 메일발송 됩니다)
* 문의사항: Tel: 323-735-3000, Fax : 323-735-3111 Website:scalckc.org
Email: koreanchurch981@gmail.com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US 군목 및 채플린 세미나

여러분 자녀들을 미군선교사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역자여러분! 전세계 미군의 주둔지에서 개척해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미국 내 병원 및 관공서 채플린을 권합니다. (년봉 4만불이상)

미군 현역 군목들과 채플린들이 군목을 지원하는 방법과 혜택 그리고 채플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드리는 공개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특히 유학생들이나 서류미비자이지만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합법체류가 가능한 분들이 미군군목을 갈 수 있는 과정도 소개합니다.

"병사에게 침례를 주는 한인목사"

LA 온누리 교회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382-5658

· 일시 : 2015년 1월 26일 AM 8시 – PM 4시
· 참가비 : $35불 (점심포함)
· 강사 Chaplain, Rev. Stephen Feinstein / Chaplain, Rev. Joseph Choi / Chaplain Josh Lee, LCDR, CHC
· 세미나 문의 : (310)502-9999

" 당일 오전 8시이전에 학생증을 소유하고 입장하시는 학생들(신학생,일반학생)은 군목연구소에서 장학금으로 참가비를 대납해드립니다 "

산타모니카한인교회
SANTA MONICA KOREAN CHURCH

영혼사랑을 실천하는교회
선교를위해 존재하는교회
십자가의길을 경험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9시 (본당) 공예배
2부예배 오전 11시 (본당) 영어예배
3부예배 오후 1시 (본당) 대학, 청년부
어린이예배 오전 9시(유아실)
중,고등부 예배 오전 9시 (교육실)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 ~ 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
주일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2층)

www.smkc.us

담임목사 김 경 렬 Rev. Kenny Kim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el. 310-502-9999 smkckim@gmail.com

이슬람교도 레자 아슬란의 예수론 비판 (4)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I. 방법론적 오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분리
1. 역사의 예수를 복음서의 예수와 분리
2. 젤롯의 시각으로 교회적인 예수의 이미지를 변형

II. 아슬란은 신약성경의 고유한 텍스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실증주의적 역사 개념
2. 복음서 기록에 대한 왜곡의 세 가지 실례
3. 아슬란의 해석은 복음서 기록과 전혀 상반
1) 요한의 기록: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2) 누가의 기록: 빌라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3) 마태의 기록: 빌라도는 예수를 두려워하였고 십자가 처형 언도와는 무관하다고 선언했다.

마태의 기록도 요한이나 누가의 기록과 다르지 않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다,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다고 고발한다.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한다. 예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마 27:11a)라는 빌라도의 심문에 "네 말이 옳도다"(마 27:11b)라고 대답하신다. 그 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비난과 고발에 대하여 예수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한다"(마 27:14). 마태는 기록하기를,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 고발된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마 27:18).

마태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 때문에 지난 밤에 매우 애태운 꿈 꾼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마 27:19).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려고 하였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고 강권하므로, 빌라도는 대야를 가져오라 하여 이 결정에는 자기는 무관하다고 손을 씻기까지 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마 27:24). 그리하여 빌라도는 민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처형하도록 허락한다. 빌라도가 민란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민중들이 그를 추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입성할 때의 메시야 열기가 완전히 식고 고난의 종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찬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실도 예수가 민중이 열광한 해방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싫어한 고난의 종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마 27:26). 빌라도는 대야를 가져오도록 하여 손을 씻을 정도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 언도를 내림에 있어서 깊은 내적 갈등과 양심의 가책과 주저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음서 기자들의 일치된 증언은, 아슬란이 왜곡하여 서술하듯이 예수의 심판이 다른 로마체제에 대한 반란자인 열심당원을 처형하듯이 즉결심판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아슬란은 실증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개념에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역사적 예수상을 그려내면서, 복음서 저자들이 증언한 성경적 예수상을 왜곡하고 있다. 아슬란이 왜곡하듯이 예수는 문맹자가 아니었고, 정치혁명가적 의도가 없었다. 민중의 소요죄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정치적 안전을 위하여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었다. 그래서 요한, 누가,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혁명가적 혐의가 없는 것을 알고 세 번이나 풀어주려고 했다. 따라서 예수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다. 예수에게 구태여 혁명가라는 딱지를 붙인다면 영적 실재로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인간과 사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영적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

III. 아슬란은 역사적 예수를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다

아슬란은 역사적 예수를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치혁명가적 이데올로기를 역사적 예수에 투영시켜,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을 주는 구원과 평화의 왕이요 고난의 종인 예수를 정치 이데올기적으로 해석하여 "정치 혁명가"로 왜곡시키고 있다.

1. 아슬란의 왜곡: 네 복음서는 로마의 지적 엘리트층을 위하여 예수의 혁명가적 흔적을 제거

아슬란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그는 예수를 메시야로 추종하던 유대인은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교가 추방되었을 때 "혁명주의적 메시야상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평화주의 메시야상을 추구하든지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섰다"고 본다. A.D. 70년 이후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지역의 그리스와 로마시로 옮겨가서, 1세기 말이 되자 로마의 지성적 엘리트층을 선교의 핵심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예수의 메시야상에서 본래의 혁명적 흔적을 제거해야 했다고 해석한다. "주요한 복음서들이 이미 기록된 1세기 말이 되자, 로마(특별히 로마에 사는 지적 엘리트층)가 기독교 선교의 핵심 표적이 되었다. 이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어느 정도 창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의 삶에서 혁명적 열정의 흔적을 모두 제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대한 로마인들의 책임을 완전히 씻어주어야 했던 것이다. 이제 메시야를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Reza Aslan, Zealot, 민경식 역, 『젤롯』, 225).

아슬란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이 증언하는 바 빌라도가 예수의 재판에 깊이 관여하고 예수를 처형한 사실을, 이들 기자들이 혁명가적 예수를 제거하는 가운데서 조작된 것으로 본다. 아슬란은 이들 복음서 기자들의 기사(記事)들은 본래의 정치혁명가적 예수상과는 상관없이 후대에 생긴, 로마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반유대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치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원래 마가의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로마의 책임을 벗겨주려는 순전히 선교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불합리한 왜곡이 덧붙었다. 이 이야기가 2천년에 걸친 반유대주의의 토대가 된 것이다."(Reza Aslan, Zealot, 민경식 역, 『젤롯』, 227).

이러한 아슬란의 해석은 그 자신이 세운 "정치 혁명가" 가설(假說)에 입각하여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을 왜곡한 것으로, 네 복음서 내용과 상반되고 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분명히 그의 복음서에서 그의 기록이 예루살렘 함락(A.D. 70년) 이전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막 13:1-2). 이 구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의 예언으로,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함락되기 이전에 한 말씀인 것을 명료히 알려준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는 다가올 이방(로마) 군대에 의한 도시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에 관한 예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막 13:14-20) (마가복음 13장 1-2; 14-20에 대한 독일성서공회판 해석관주, 1992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10, 111).

마태의 증언도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마 24:1-2). 이 구절에서 예수는 건물의 화려함 따위에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예언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다가올 이방(로마) 군대에 의한 도시 예루살렘의 파멸에 관하여 예언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 24:15-22). 여기서 마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 않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다가올 환난과 파멸에 관하여 언급했던 역사적 예수의 예언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에서 마태복음 역시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마태복음 24장 1-2; 15-22에 대한 독일성서공회판 해석관주, 1992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58).

누가의 증언도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눅 21:5-6). 이 기록에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예술적 가치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시며,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 21:20-24). 이 구절은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장치 일어날 파괴에 대한 예언이다. 앞으로(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해 여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점령되고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있다(누가복음 21장 5-6; 20-24)에 대한 독일성서공회판 해석관주, 1992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3).

그러므로 주후 70년 이후에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가 로마인들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쓰였다는 아슬란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조작이요 허구인 것이다.

영국의 신약학자 브루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주후 60년경에 저술하여,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이자 유일한 이방인 의사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후 일어난 30년간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F. F. Bruc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생명의 말씀사 역, 신약성경문헌, 1977, 82, 95.).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더 전에 쓰였기 때문에 아슬란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마가, 누가, 마태복음서가 예루살렘 함락의 예언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세 복음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쓰인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복음서는 후대 교회의 조작이 아닌, 역사적 예수께서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하신 신빙성 있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계속〉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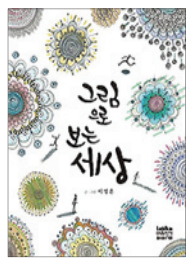
목마른 인생

서정오 | 두란노 | 272쪽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나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등 10가지 인생의 질문들에 감성적·문학적으로 접근하며 답을 풀어낸다. 고교 국어 교사를 지낸 이력 때문인지, 평소에도 문학 서적을 가까이 하며 설교에도 잘 인용하는 저자만의 색깔이 잘 녹아 있다. '당신의 꼬인 인생은, 예수가 임할 때 새 옷으로 거듭난다'고 강조한다.

그림으로 보는 세상

이영훈 | 마음지기 | 280쪽



미술 치료사이자 칼럼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 온 저자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 우리의 이야기. 그림과 생각이 담긴 책으로, 저자가 일상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 사물을 바라보며 발견한 깨달음들을 특유의 시선으로 풀어가고 있다. 의미없이 흐른 것 같은 어제도, 하기 싫은 일들을 짊어져야 했던 오늘도, 삶의 명작을 완성해 가는 하나의 붓질이었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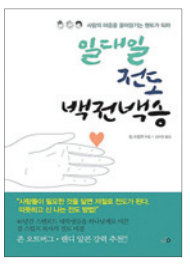
거침없이 빠져드는 성경 테마 여행

김창대 | 브니엘 | 384쪽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부터,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가진 성도들까지로 대상을 넓혀 쓴 개정판이다. 최대한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성경을 읽으며 궁금할 법한 일반적 사실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125가지 테마로 선별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많은 자료들도 첨부했다.

일대일 전도 백전백승

짐 스텀프 | NCD | 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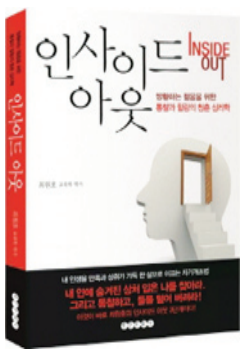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지만, 생각만으로 힘들고 두려운 일이 돼 버렸다. 이는 거절감이나 거절당한 경험 때문인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전도 자체가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일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가장 완벽한 전도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한다.

REVIEW

상처 받은 미생들을 위한 청춘 심리학

청춘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청춘답게 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인사이드 아웃 Inside Out'
최원호 | 태인문화사 | 263쪽

'인사이드 아웃 Inside Out'은 방황하는 젊은이를 위한 통찰과 힐링의 청춘 심리학 책이다.

대한민국 청춘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입시만을 향해 달려가는 교육제도 때문에 자신의 개성과 꿈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다. 점수에만 매달려 무기력해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폭력적으로 변해가기도 한다.

또 학교 졸업 후에도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알바로 일하며 무시, 비하 등의 마음의 상처와 희망없는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 역시 많다.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다. 항시적인 구조조정 분위기, 승진 경쟁, 연봉제 등 구조적인 시스템은 물론, 과도한 업무량, 상사와의 관계, 업무에 대한 책임감, 조직 내에서 모호한 자기 위치 등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쳐 직장인 7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교신문 주필겸 한영신학대학교 겸임교수인 저자는 이들을 바라보며 '정말 괜찮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청춘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무엇보다 청춘답게 살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다.

상담심리학자로 대학에서 강의하며 상담을 통해 청춘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했던 저자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 안에 숨겨진 '상처 입은 나'를 찾아서 통찰하고 툴툴 털어 버리라고 조언한다.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찾아내,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통찰하고, 그 문제를 툴툴 털어 버리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청춘들이 자존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청춘들의 삶에서 이러한 인사이드 아웃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 하고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인사이드 아웃 효과를 얻기 위한 내 안에 숨겨진 상처 찾기, 통찰하기, 털어 버리기 3단계 과정을 실행케 함으로써,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함은 물론, 일과 삶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여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최고의 만족과 성취를 얻게 한다.

저자는 인사이드 아웃의 효과는 이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9가지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항상 웃게 되고 삶에 흥미를 느끼며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는 것. 아울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되며,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일과 삶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석수 기자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 하니 섬길수록 힘들고 불행해

김형익 목사, 북토크서 자기고백 통해 조언

북토크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의 저자 김형익 목사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12일(월)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열렸다.

'하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서는 김관성 목사(〈본질이 이긴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 저자)가 사회를 맡았고, 한국 크리스천투데이지에 '슬로우 리뷰'를 연재 중인 이정규 강도사(시광교회)가 발제했다.

김관성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이 어디냐"고 첫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김형익 목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인은 교회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부터 그를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제가 그분을 모르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았고,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썼다"고 했다.

김형익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구체적 모습들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등의 생각을 가진 채 선교사·목사가 됐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은 섬겨도 섬겨도 힘이 든다"며 "저는 어릴 때 율법적인 교회에 다녔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성수를 가르쳤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가야 할 것인데, 그것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저는 중학교 때 회심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다. 하나님을 저처럼 열심히 섬기는 중학생은 없었는데도 저는 그런 찜찜한 삶을 벗어날 수 없었다"며 "좋아하면 닮는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28살에 선교지 나갈 때 처자식을 데리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었고, 저와 비슷한 선교사들을 많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익 목사는 "이것이 선교사만의 이야기일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며 "저는 선교동원가였다. 집회에 가서 청년들을 선교에 헌신하게 하고, 교회들에게 선교헌금 많이 내게 했다. 저의 선동(?)에 코 꿰어서 나간 선교사가 있었는데, 현지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며 '장밋빛 꿈을 품고 선교를 나갔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억지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저의 삶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선교하지 않으면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협박성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게 됐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척 벅찬 마음으로 헌신하더라.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헌신'을 얼마나 '잿빛 헌신'으로 전락시켰었는가를 후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익 목사는 선교의 정의와 신자들이 선교를 가장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선교사로 있을 때도, 선교사를 훈련시킬 때도, 사람들에게 선교를 가르칠 때도, '선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그 선하심이 흘러가는 것'이다"며 "선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칠 때 나온다"고 말했다.

김형익 목사는 "저는 복음을 심으면 선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바울은 선교사였지만 사실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했다. 복음이 충만할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 '오버플로잉'(overflowing)이다. 그러나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오버워킹'(overworking), 즉 쌍코피 터지는 거였다. 힘은 드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다. 저의 경험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시각이 바뀌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석수 기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관성 목사, 김형익 목사, 이정규 강도사가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10년 만에 돌아온 렛츠바이블-더 메시아

예수 탄생부터 공생애, 고난, 십자가의 길 등으로 구성

특별시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제공

성서체험전 '렛츠바이블 -더 메시아'(이하 렛츠바이블) 특별시사회가 지난 9일(금)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3층 전자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을 맞아 재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성서체험전 '렛츠바이블'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제이엔디씨티인베스트'(대표 이동원)가 공동 주최하고 오너스코리아(대표 신동운), 렛츠바이블(대표 김욱)이 공동주관하며 토브플랜 문화선교회의 진행으로, 이번 서울 블루스퀘어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성서체험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렛츠바이블은 읽기만 했던 성경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경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전시문화 콘텐츠다. 이번 렛츠바이블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고난, 십자가의 길, 골고다언덕, 죽음, 부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야외의 특설전시장에 세계 최초로 재현된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관람객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연출되어 많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10년 만에 준비된 렛츠바이블은 2004년보다 발전된 기술 및 전시 표현력으로, 성경을 공간으로 표현해 글로 보고 상상하던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교육 및 문화선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섭 교수는 "이번 렛츠바이블은 전시를 문화적 퍼포먼스로 재해석한 엔텍시비션 기법과 다양한 영상기술을 활용한 최신식 미디어 아트 기법을 접목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연출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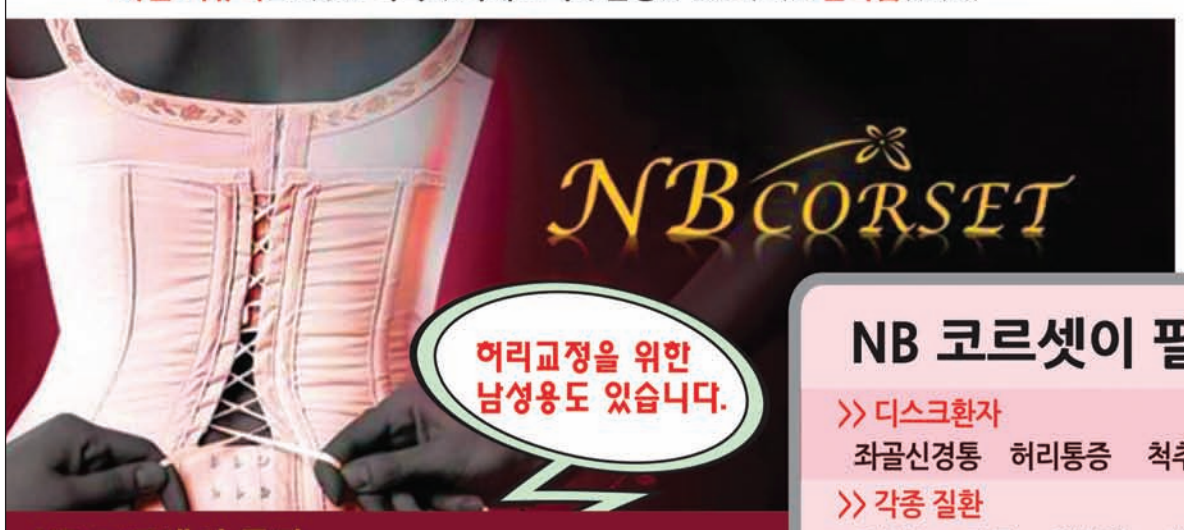
주관사 오너스코리아는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한 에덴동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노아의 홍수, 모세의 출애굽, 요한계시록의 예언 등 성경의 중요한 이벤트 및 인물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고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12개의 성서체험전이 완성되면 성지순례와 같은 감동을 국내에서도 부담없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렛츠바이블 서울점(블루스퀘어)에서는 성서체험 뿐 아니라 나사렛 마을을 콘셉트로 한 F&B 프렌차이즈를 출시해 전국의 각 교회에 확산시키고,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기부단체 설립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사인 제이엔디씨티인베스트는 "10년의 기도로 개관하게 된 렛츠바이블이 선교 및 문화예술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설교로 개관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이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췌장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신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이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이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슈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슈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 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슈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기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 적 해 결
소장: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캐더링 환영
머글래 싸갈래
연말연시 동창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도시락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어국 돈까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불고기 공차구이 오므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갈비
수 동태찌게 함박스텍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뎅백반
금 꽁치김치 뚝불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게
토 부대찌게 갈치구이 돈까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온 돌 마 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소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혹,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빼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윈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3.8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With $2,999 Down + $1250 lease cash, $5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3899 without $1250 lease cash
Equus signature 2014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With $8499 Down + $1000 lease cash, $1000 Valued or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0,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10399 without $1000 lease cash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고베쥬얼매트 뉴욕 1차분 완판 기념 특별 진주보석 쇼!!

1월 23일(금)-25일(주일) 엘에이 한인타운, 개그맨 강성범과 함께하는 사상 최대 경품잔치로 열려

고베펄사가 지난 11월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판한 고베쥬얼매트 1차분이 20일만에 완판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특히 고베쥬얼매트 출시 기념으로 엘에이에서 사상 최대 경품 잔치를 마련해 펼치는 특별 진주보석쇼를 개최한다.

이번 진주보석 쇼는 2015 새해맞이 신상품 진주보석과 홍산호3종 세트, 골드 남양진주 초대박 세일도 함께 펼쳐진다.

특히 이번 진주보석 쇼에는 개그맨 강성범이 고베쥬얼매트 판매 도우미로 활약할 예정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고베펄 행사를 통해 인사를 드린다. 또한 행사 3일간 대박 경품 행사가 펼쳐진다. 경품으로 1등에는 3천불 상당의 자수정 퀸 매트 등 모두 1만여불 상당을 걸어 큰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또 2등에는 2천 300불 상당의 고베쥬얼매트 싱글사이즈, 3등에는 1700불 상당의 고베쥬얼매트 프로페셔널 등 6등까지 모두 1만 4천여 불의 경품이 주어진다.

두달전 뉴욕, 뉴저지에서 인기몰이를 해 완판된 컨테이너 1차분 고베쥬얼매트는 동부 지역의 계속되는 추위에다 이번에 사상최대 온열매트 경품잔치가 한인타운 복판에서 펼쳐지면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버지니아 등 동부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고베쥬얼매트는 싱글과 더블 사이즈 그리고 메디컬로 각광 받고 있는 프로 등 3종류를 출시하는데 더블 사이즈의 경우 30킬로그램의 중량이다. 자수정 건강 매트는 의료기에 자수정 보석을 입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침대 위에 깔고 잠자기만해도 온열에 의한 바이오 발생으로 당뇨병과 여성들의 냉대하 등 부인병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고베펄사의 초대박 진주보석 세일은 최대 80% 세일에 펜던트와 브로찌, 반지 등 88불부터 시작되는 88컬렉션에다 자수정 건강 매트까지 인기몰이를 함으로써 사상최대 규모의 경품잔치 진주보석 쇼로서 손색이 없는 새해맞이 첫 축제로 준비했다고 고베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진주보석 쇼에도 남양진주와 아코야 목걸이 특별전을 열기로 하고 레귤러 3300불 상당의 1줄 진주목걸이(6-7밀리)를 799달러에, 6-7밀리14k 장식 1줄 진주목걸이를 1199불에 대박세일을 펼친다.

특히 일본공법에 한국세공으로 제작되는 이들 홍산호 보석과 진주목걸이는 고베펄사의 서울강남공장에서 세공하면서 특수장식을 사용해 단아함과 우아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특히 고베펄 사의 주력 상품이 된 홍산호와 진주보석의 대표성을 지닌 남양진주와 아코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석인 자수정도 대거 선보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고베쥬얼매트와 함께 볼거리로서 전시장을 꽉 메우게 된다.

왜 자수정 '고베쥬얼매트' 이어야 하나?

고베펄사는 2년여의 각별한 준비 끝에 마침내 온열과 보석이 함께한 의료용인 고베쥬얼매트를 내놓게 된 것이다.

고베펄이 첫 시판한 이 건강 매트에는 자수정 보석이 두줄 세로로 피부와 친화적인 비닐에 의해 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한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 물론 한국 식약청(KFDA)으로부터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미 식약청은 등록을 끝내고 의료기기로 곧 인증을 받게 된다.

특히 자수정은 사랑의 수호석이라고 전해지는 보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건강 매트는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좋게 하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갱년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요실금을 비롯해 냉대하 등 각종 부인병을 예방하고 차단시켜 준다. 그리고 매트의 소재가 인체 피부와 가장 유사한 스웨이드 원단에다 각 모서리의 마감재 처리는 가히 핸드백의 대명사 루이비통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옛 고서인 '동의보감'에도 자수정의 효능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자수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부를 곱게 하며, 아기를 잉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즉 이 자수정 매트가 우리 피부와 접촉하게 되면 10센티에서 15센티 깊숙히 원적외선이라는 생명의 빛을 발산시키면서 침투해 10-14 마이크론 파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바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과 정신을 안정시키면서 면역력 증강으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것이다.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 일정

일시: 1월 23일(금)-25일(주일), 3일간
장소: 로텍스 호텔 2층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CMM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어떻게 대비 하시겠습니까?

기독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 (c) (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지부장: 김경호 목사
☎213.249.1161
shelby.moon65@gmail.com
621 S Virgil Ave ,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LA
☎ 949.864.9162
cmm6791027@gmail.com

※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FDA IND임상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tax 3병 $249+tax 6병 $474+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인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tax 3병 $179+tax 6병 $342+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